

## 연금시장리뷰 17호

한국과 일본 직장인의 은퇴준비에 관한 인식조사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 현석원 연구위원 (02-2072-6215, kyotohyun@hri.co.kr)
- : 정민 연구원 (02-2072-6220, chungm@hri.co.kr)

## □ 한국과 일본 직장인의 은퇴준비에 관한 인식조사<sup>1</sup>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직장인들과 한국 직장인들의 은퇴에 대한 인식을 비교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직장인들의 은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일본 직장인들보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전체의 49.2%에 달해 '나빠질 것' 1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를 차지해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는 은퇴자금 마련 가능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직장인들의 40.3%가 퇴직 전 은퇴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고 답해 일본 8.1%에 비해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퇴직 전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달해 한국 20.6%에 비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은퇴자금 준비에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은퇴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0.5%로 일본 5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9.5%로 일본 44.3%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 직장인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는 바람직하지만 세부적인 자산 준비 상황을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공적연금 외의 은퇴 자금 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일본 직장인들은 예적금과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선택한 반면, 한국 직장인들은 예적금과 유사하게 부동산 취득을 선택했다. 이는 은퇴 자금 마련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을 선택한 일본의 직장인들 1.9%와 대비된다.

또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은퇴 준비의 3층 구조' 중 하나인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낮은 점도 지적되었다. '확정기여형 기업퇴직연금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 직장인들의 78.2%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직장인들의 은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은퇴 준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이 과거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거품 붕괴와 경제성장률 하락, 임금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불황에 처한 사례를 볼 때,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sup>1</sup>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과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5월 25일 보도자료 참조)를 재정리한 것임

## 1. 연구 개요

### ○ 연구 배경 및 목적

- 2000 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음
-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직장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은퇴 전망과 연금에 대한 인식, 은퇴 준비 등에 실태를 실시 하여 바람직한 은퇴준비 방향을 찾아 보고자 함.

### ○ 조사의 개요

- 한국
  - 조사기간: 2010 년 3 월 17 일 ~ 21 일
  - 조사기관: 현대경제연구원
  - 조사대상: 전국 20-50 대 직장인 626 명을 대상
  - 조사방식: 전화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pm 3.92\%$
  - 표본 추출 방식: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중심 직장인을 대상으로 Random Sampling 이용함
- 일본
  - 조사기간: 2010 년 3 월
  - 조사기관: The Fidelity Investor Education Institute(Japan)
  - 조사대상: 전국 20-50 대 직장인 10,976 명을 대상
  - 조사방식: 전화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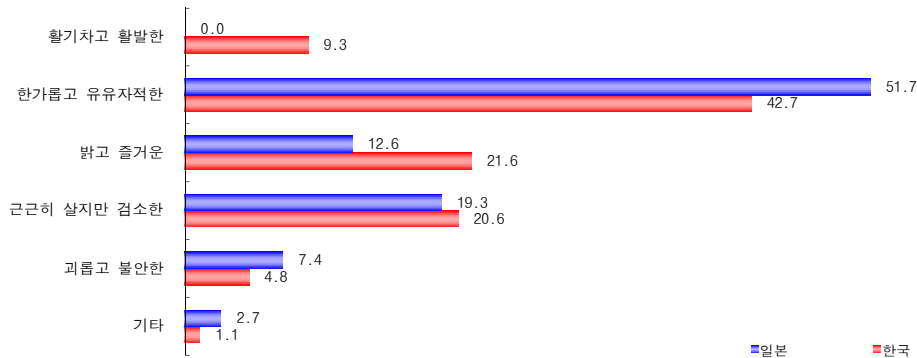
## 2. 인식 조사 결과

### 1) 은퇴 후 전망

#### ○ (은퇴후 이미지) 한국과 일본 모두 밝은 노후를 갖기를 희망함

- 한국과 일본 모두 은퇴 후, 한가롭고 즐거운 이미지를 희망 하고 있음
  - 한국은 73.6%가 즐거운 노후를 꿈꾸고 있지만 25.1%는 근근히 살면서 괴롭고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음
  - 일본 역시 74.5%는 은퇴 후 즐거운 삶을 꿈꾸고 있지만 26.7%는 괴롭고 불안한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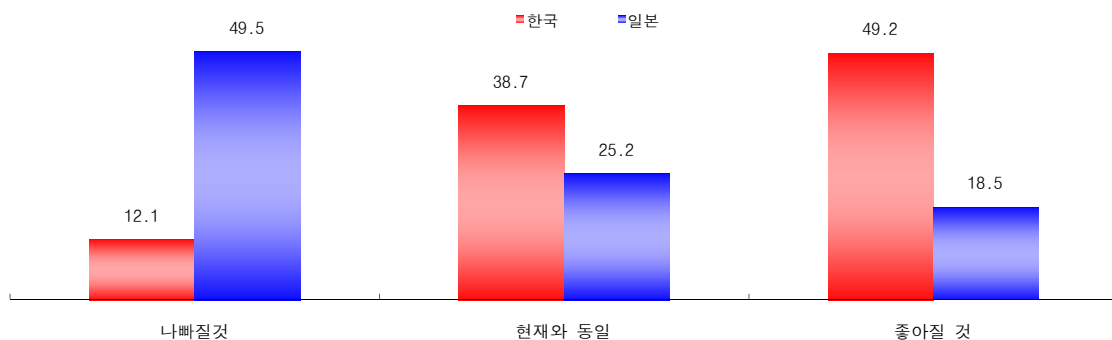
< 정년퇴직 후 생활에 대한 이미지 >



#### ○ (은퇴 후 생활) 한국은 희망적, 일본은 비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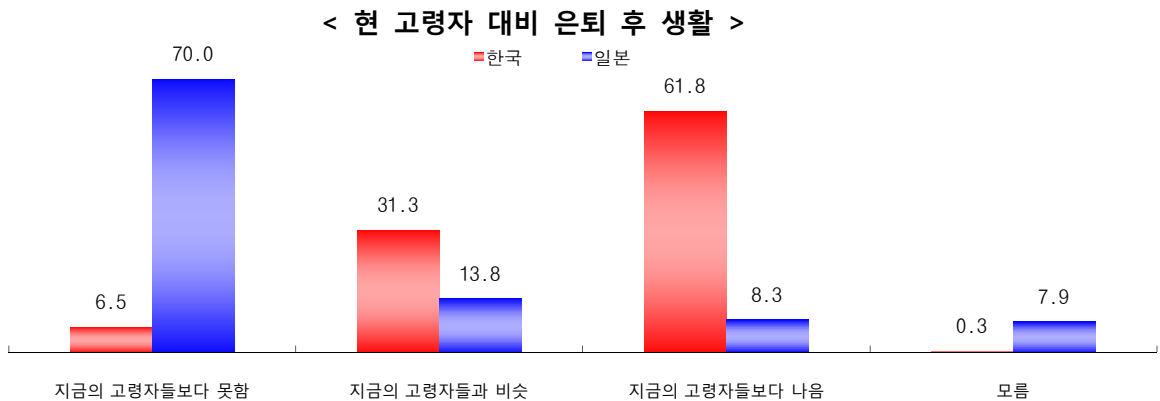
-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에 대해서 한국 직장인들은 일본 직장인 보다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직장인들은 49.2%가 은퇴 후 삶이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 12.1%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
  - 일본은 반대로 49.5%가 은퇴 후 생활이 현재의 생활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18.5%만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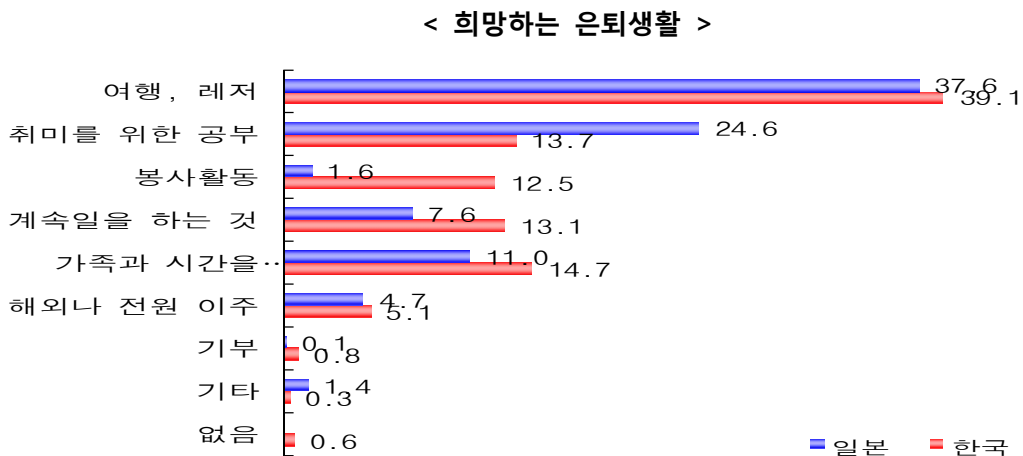
○ (현 고령자 대비 은퇴 후 생활 비교) 한국은 낙관적이고 일본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은퇴 후 생활이 현재의 고령자들과 비교해서도 한국은 낙관적, 일본은 더욱 비관적임
  - 한국의 경우 은퇴후 생활이 지금의 고령자들보다 나을 것이라고 보는 비중은 61.8%이고 지금의 고령자보다 못할 것이라고 보는 비중은 6.5%에 불과함
  - 일본은 반대로 70.0%가 지금의 고령자보다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나을 것이라고 보는 비중은 8.3%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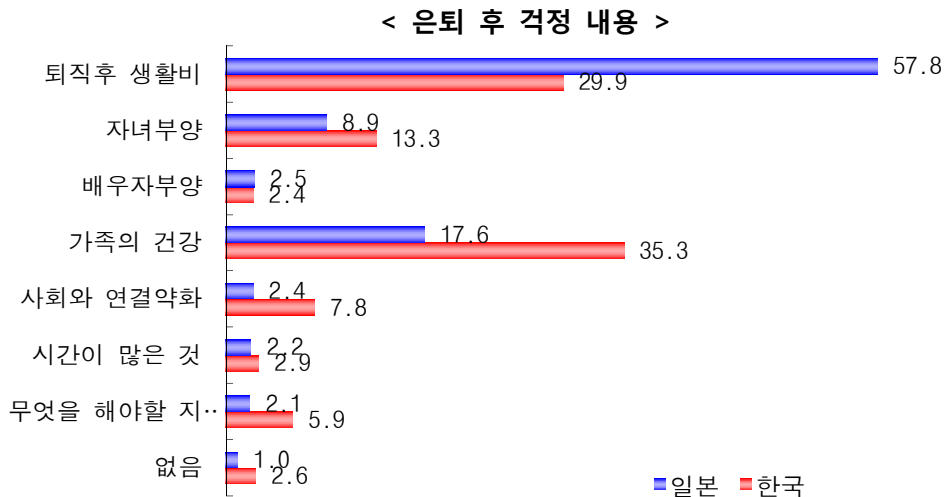
○ (희망하는 은퇴 생활) 한국, 일본 양국 모두 희망하는 은퇴생활 1위는 여행과 레저임

- 한국은 가족, 봉사활동 등 사회적인 참여가 강한 반면, 일본은 취미를 위한 공부 등 개인 성향이 강함
  - 계속 일을 하는 것에서도 일본은 7.6%에 그친 반면, 한국은 13.1%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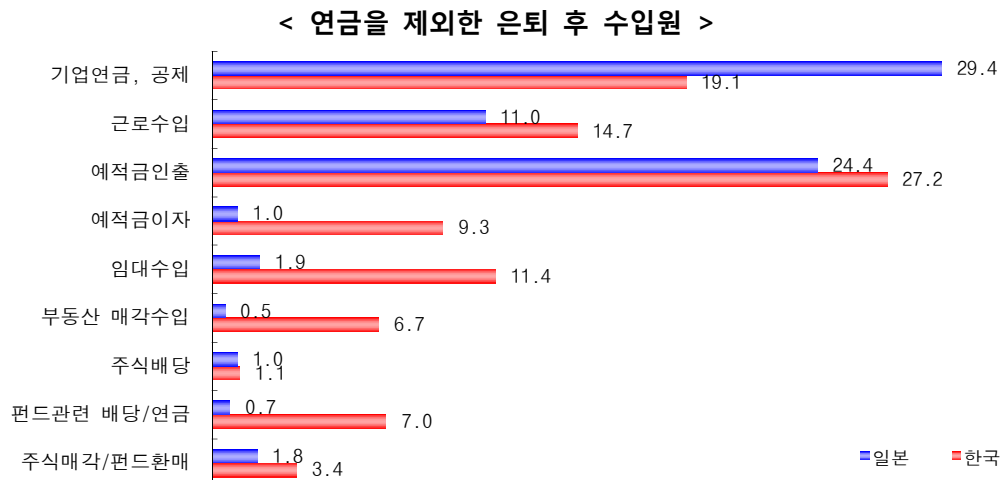
○ (은퇴 후 걱정 내용) 한국은 가족 건강을 가장 걱정하고 있고 일본은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음

- 은퇴 후 걱정에서 일본은 생활비 등 자신의 생활에 대해 걱정을 주로 하는 데 반해 한국은 가족, 자녀, 사회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은퇴 후 수입원) 한국은 예적금 인출이 최대의 수입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은 기업 연금에 최대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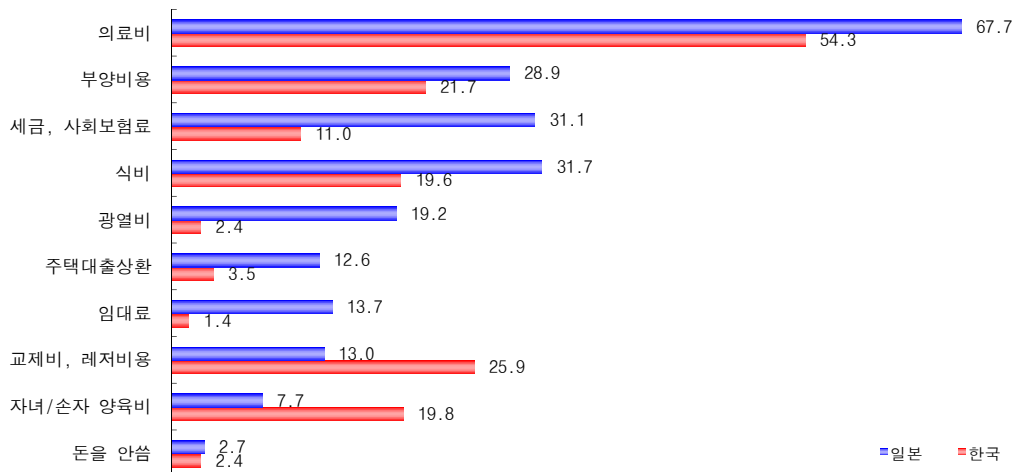
- 일본은 연금, 예적금 인출 의존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한국은 예적금, 연금과 함께 부동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은퇴 후 예상 비용 지출) 한국, 일본 양국 모두 의료비가 1위를 차지함

-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교제비 및 레저비용이고 일본의 경우 식비를 기록
- 의료비 이외에 일본은 생계 유지에 한국은 사회, 가족 등 관계 비용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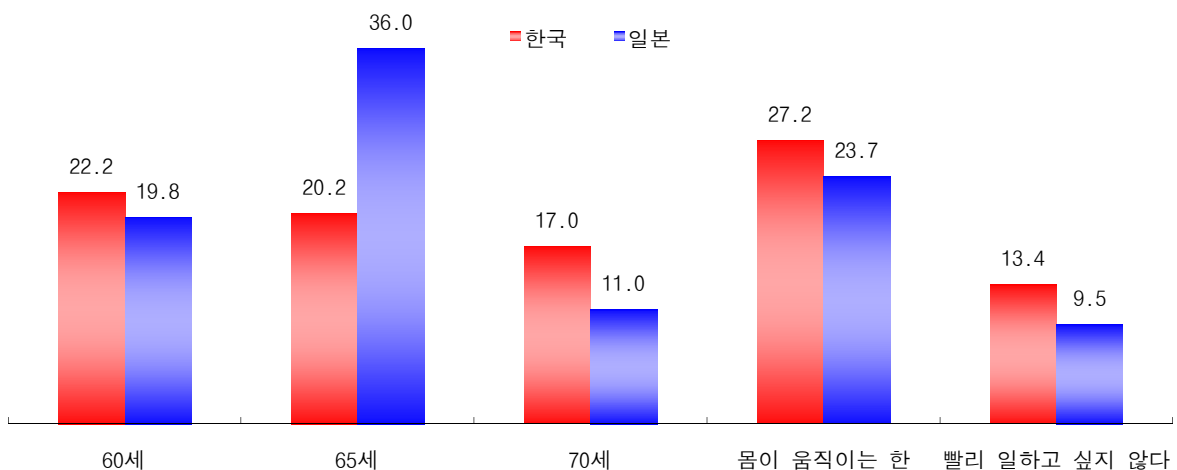
< 은퇴 후 예상 비용 지출 비교 >



○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연령) 한국이 일본보다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더 길게 보고 있음

- 한국은 70 세 이상 몸이 움직일 때까지 일하겠다는 비중이 44.2%를 기록하였고 일본의 경우 65 세 이하 연령이 55.8% 차지하고 있음

<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연령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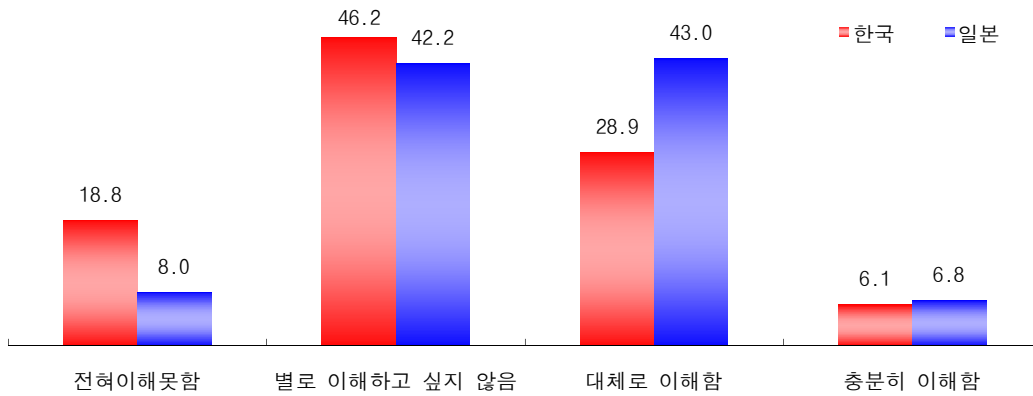


## 2) 공적 연금

### ○ (공적 연금 이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연금 재정 등 공적 연금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어 온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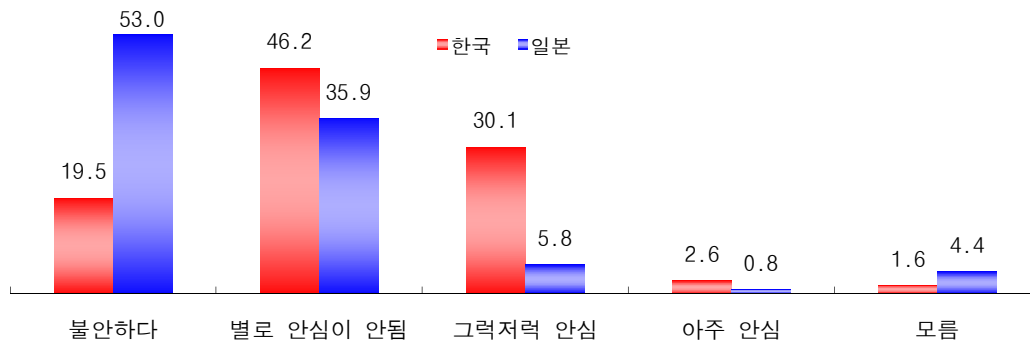
< 공적연금 이해 정도 비교 >



### ○ (공적 연금 안심도) 일본이 한국에 비해 불안해 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정년을 연장한 만큼 연금 재정 부족이 심각하지만, 한국은 연금 재정이 그리 심각하지 않기 때문임

< 공적연금 안심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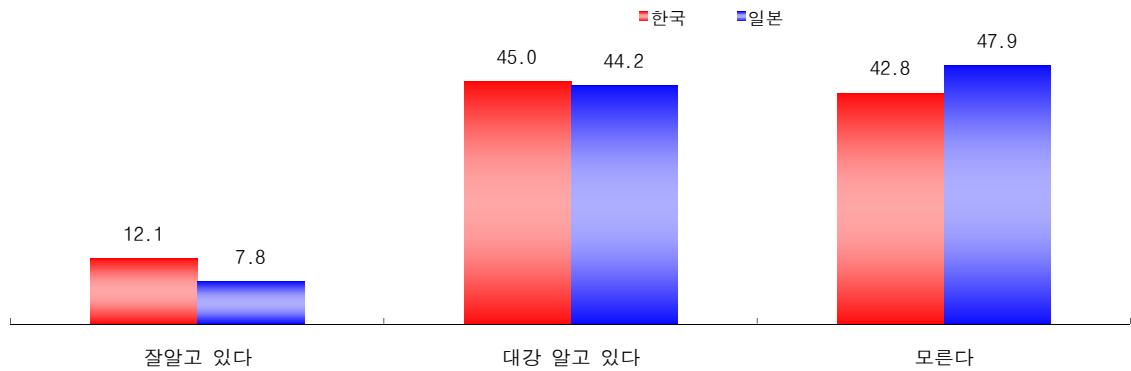




○ (공적 연금 수령액 인지) 한일 양국 모두 수령액에 관한 인지에 대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모른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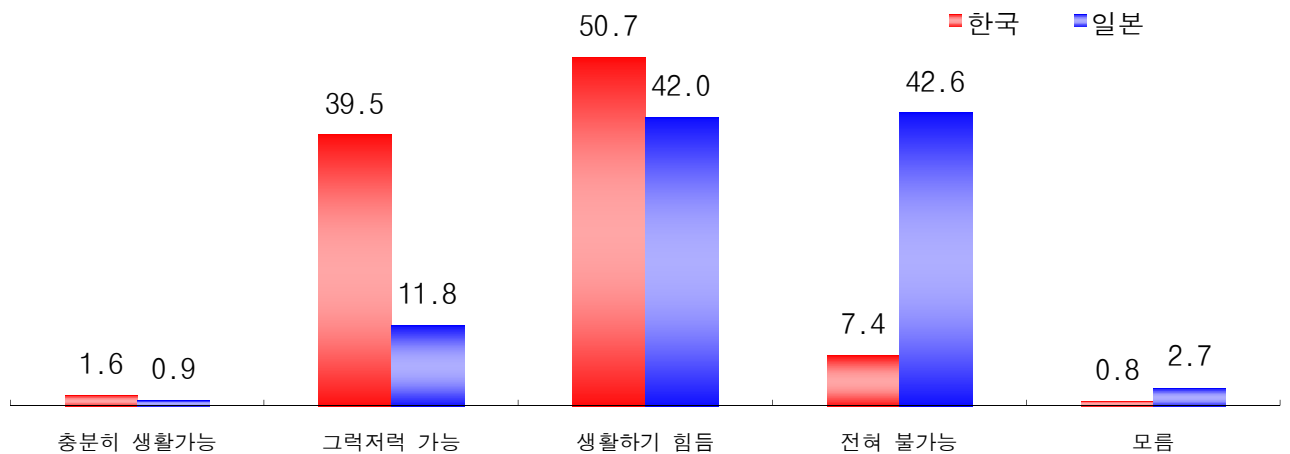
- 한국은 자신의 연금을 자신이 낸 금액으로 받는 적립식이나, 일본은 자신의 연금을 타인이 부과하는 부과식이기 때문에 수령액 인지 여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적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비교 >



- 은퇴 생활에 대한 공적 연금의 기여도에 대해 일본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 불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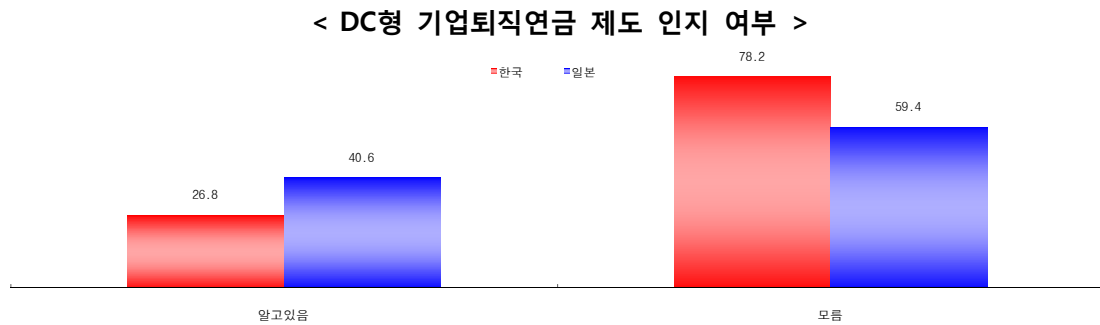
< 공적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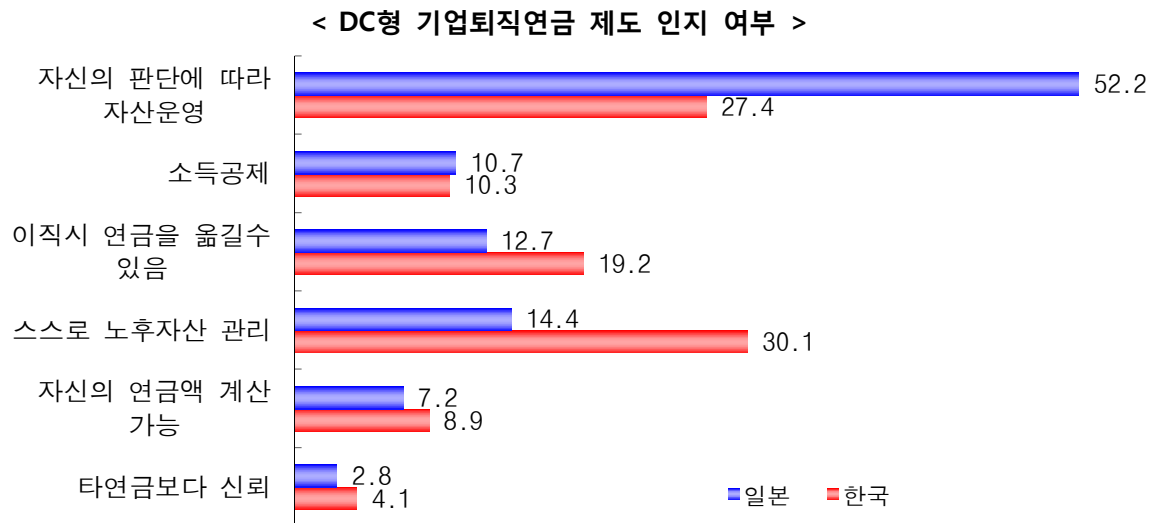
### 3) 기업 연금

○ (DC형 기업퇴직연금 제도 인지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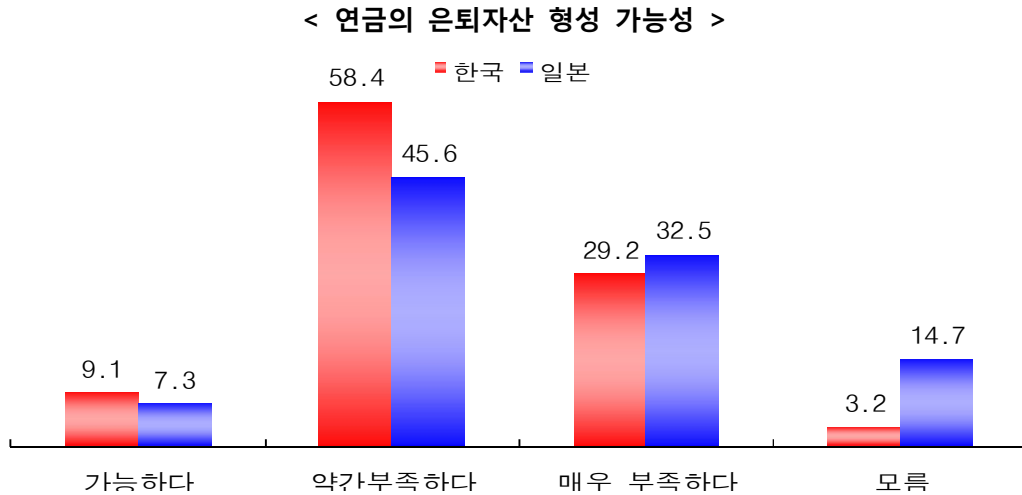
- 한국은 10명 중 8명이 모른다고 답한 반면, 일본은 6명이 모른다고 답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한국은 '스스로 노후자산 관리할 수 있어'라는 답변이 일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산 운용할 수 있어' 라고 답한 것이 각각 많음
- 한편, 한국의 경우 이직 시 연금 이전이 일본보다 높은 이유는 퇴직연금보다는 일시 수령인 퇴직금제도가 한국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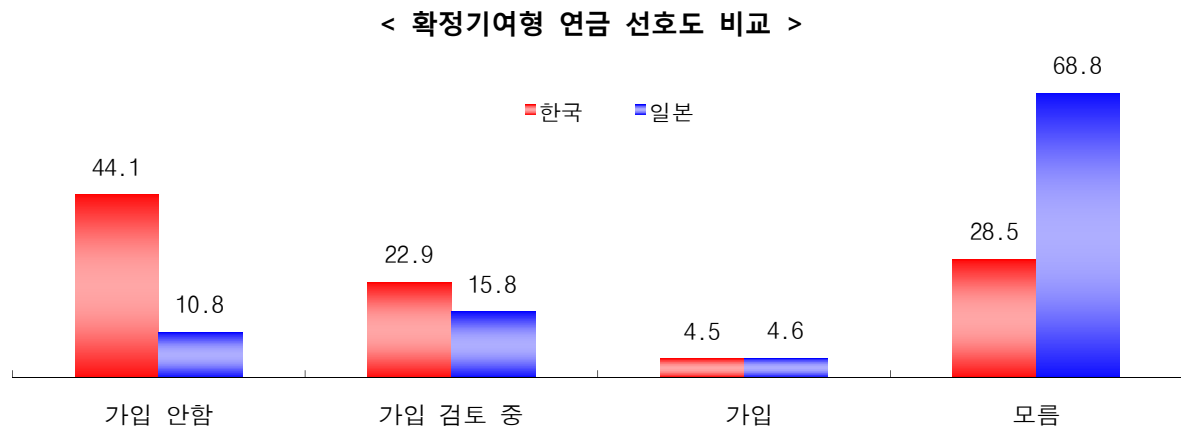


- 연금의 은퇴자산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연금만으로는 은퇴 자산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함
  - 한국은 10명 중 9명이, 일본은 10명 중 8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확정기여형 연금 선호도) 한국의 경우,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 가입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일본은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음

- 한국은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44.1%를 기록한 반면, 일본의 경우 1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본의 경우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6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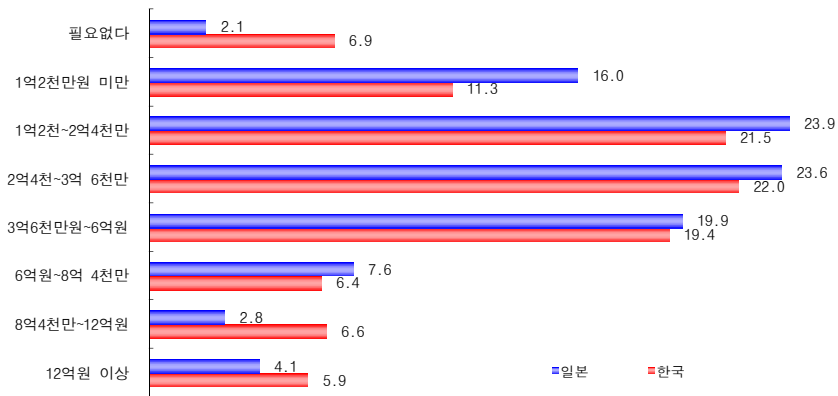


#### 4) 은퇴 준비

○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정도) 한국과 일본 모두 1 억 2 천~ 6 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8 억 4 천만 원 이상 많은 생활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은 한국이 일본보다 두 배 가깝게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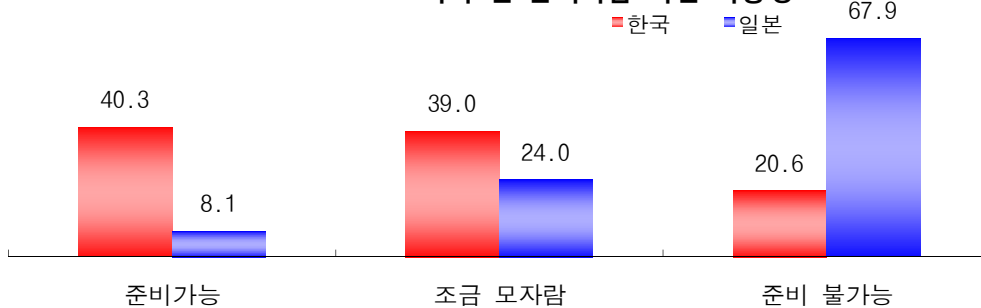
<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정도 >



○ (퇴직 전 은퇴자금 마련 가능성) 한국은 긍정적이지만 일본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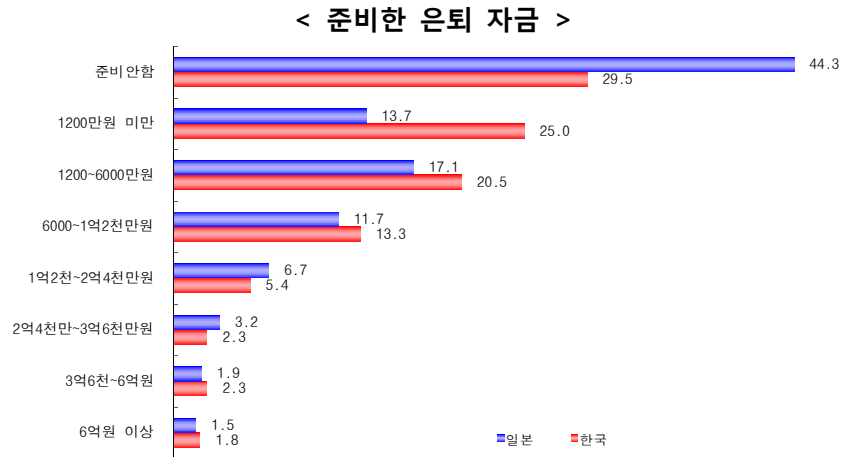
- 일본보다 한국이 '준비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4 배 정도 많음

< 퇴직 전 은퇴자금 마련 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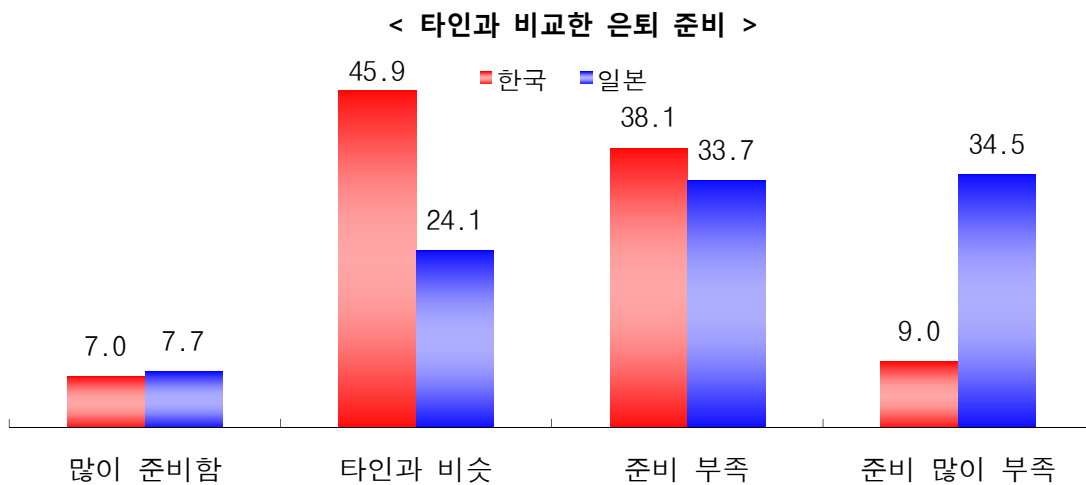
○ (준비한 은퇴 자금) 한국이 일본보다 은퇴자금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서 일본과 한국은 14.8%p 격차가 존재



○ (타인과 비교한 은퇴 준비) 타인과 비슷 또는 많이 준비했다는 의견이 한국은 10 명 중 5 명으로 일본의 3 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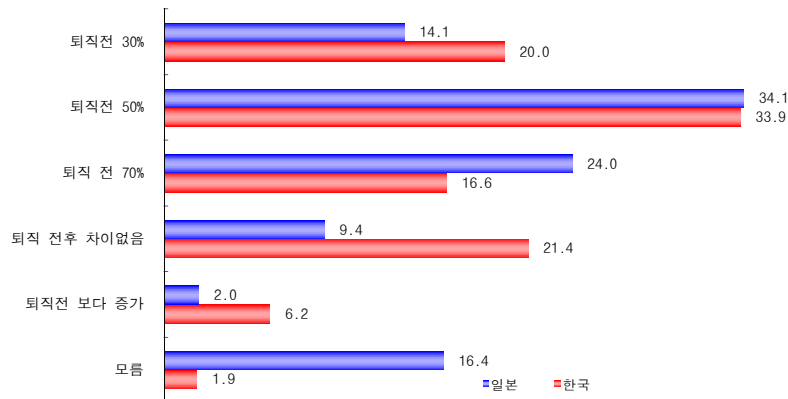
- 한국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임금 소득이 늘어났지만 일본은 장기 경제 불황으로 임금 소득이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은퇴 전후 생활비 수준) 한국과 일본 모두 은퇴 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10 명 중 7 명이 차지하고 있음

- 한편, 퇴직 전후 생활비 수준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한국이 일본보다 2 배 이상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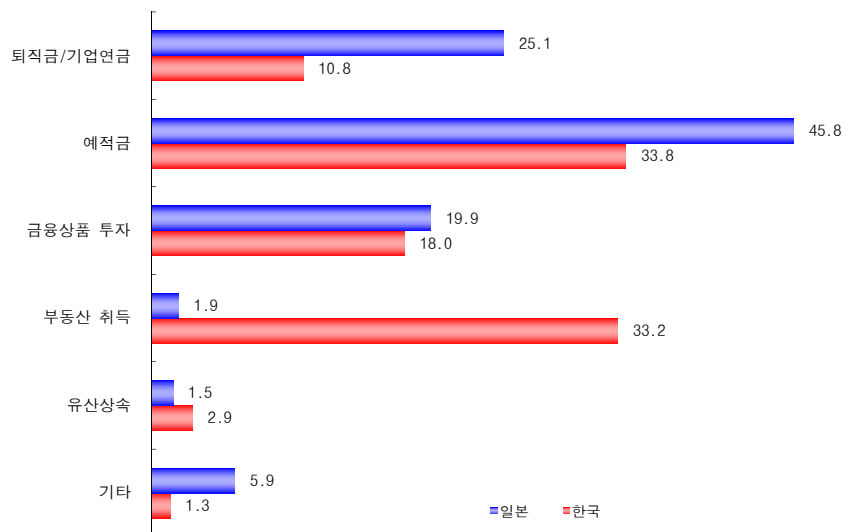
< 은퇴 전후 생활비 수준 >



○ (공적연금 외 주요 은퇴자금 마련 방법) 한국과 일본 모두 예금과 적금을 선호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공적연금 이외 예적금을 가장 좋은 은퇴 자금 마련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음  
 · 공적연금 이외 두번째로 선호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차이가 존재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부동산 취득(33.2%)을, 일본의 경우는 퇴직금 및 기업연금(25.1%)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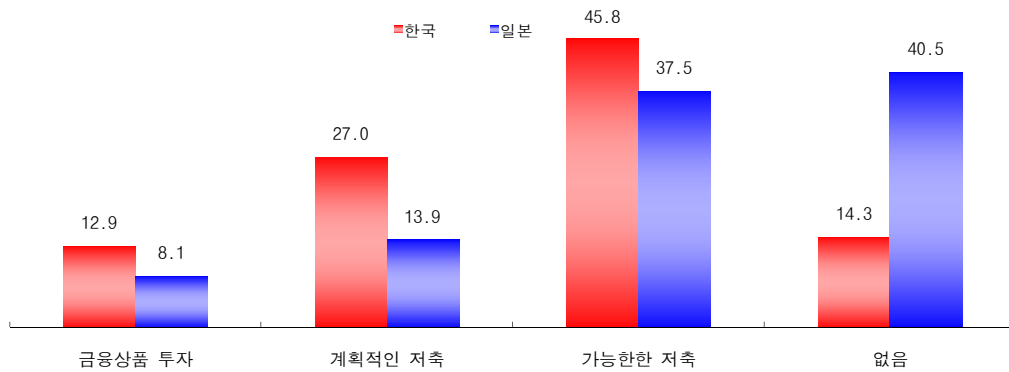
< 공적연금 외 주요 은퇴자금 마련 방법 >



○ (현재 투자 상황) 정년 퇴직 후의 자산 형성을 위해 투자 여부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비해 '투자가 없다'는 의견이 3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상품, 계획적인 저축, 가능한 범위 내 저축 등의 면에서 현재 투자 상황을 살펴볼 때, 한국인 일본에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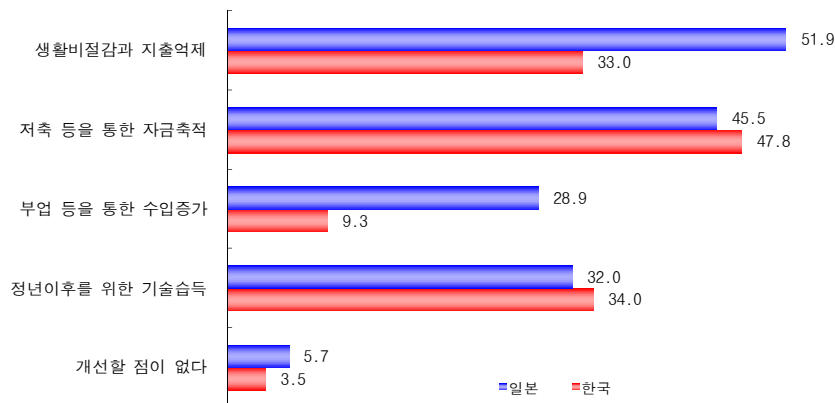
< 현재 투자 상황 >



○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개선점) 한국은 일본에 비해 더 많은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은 생활비 절감을 해야 한다고 판단

- 한국과 일본 모두 지속적인 임금 소득 보다는 생활비 절감과 저축 등을 통한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개선점 >



### 3. 요약 및 시사점

○ 은퇴 후 전망, 공적 연금, 기업 연금, 은퇴 준비 등의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직장인들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은퇴 후 전망) 경제상황을 고려 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한국직장인들은 은퇴 후 생활을 낙관적으로 보는 반면에 장기 경제불황에 처한 일본 직장인들은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큼
- (공적 연금) 연금재정 악화로 인해 정년연장 등이 이루어진 일본의 직장인들이 한국의 직장인들보다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와 수령액 인지가 높았고, 불안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연금) 최근에 퇴직연금을 도입한 한국이 일본의 직장인들보다 기업퇴직연금제도의 인지율이 낮았고, 가입여부에서도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성향이 강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은퇴 준비) 공적 연금과 예적금 이외에 한국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은퇴자산 형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일본은 기업연금/퇴직금에 대한 연금의존도가 높아 은퇴자산 형성에 비관적이었음

○ 일본의 역사를 고려할 때 한국 직장인들은 은퇴 준비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은퇴에 대한 관점차이는 한국이 경제성장률 등으로 임금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일본과 다른 적립식 연금운영, 그리고 '부동산 불패'라는 공격적 자산운영 경향 때문으로 풀이됨
- 일본이 과거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거품 붕괴와 경제성장률 하락, 임금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불황에 처한 사례를 볼 때, 고령화 속도가 높은 한국은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자제해야 할 것임

현석원 연구위원 외(02-2072-6215, kyotohyun@hri.co.kr)



<첨부> 설문 내용

1. 은퇴 후 전망

1. 자신의 정년퇴직 후 생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1. 활기차고 발랄한      2. 한가롭고 유유자적인      3. 밝고 즐거운
  4. 근근히 살지만 검소한      5. 괴롭고 불안한
2. 정년퇴직 후 생활에서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분명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재와 별 다르지 않을 것이다      4. 나빠질 것이다
  5. 아주 나빠질 것이다
3. 공적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외에 정년퇴직 후 최대 수입원은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분명히 지금의 고령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
  2. 지금 고령자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이다
  3. 지금의 고령자들과 비슷할 것이다
  4. 지금의 고령자들보다 못한 생활을 할 것이다
  5. 분명히 자금 고령자들보다 못할 것이다
4. 정년 퇴직 후 생활에서 가장 많이 비용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 입니까?
  1. 여행, 레저      2. 취미를 위한 공부      3. 봉사활동      4. 계속 일하는 것
  5.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6. 해외나 전원 이주
  7. 기부      8. 기타      9. 없음
5. 정년퇴직 후 생활에서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1개만)
  1. 정년퇴직 후 생활비      2. 자녀부양      3. 배우자 부양
  4. 가족의 건강      5. 사회와의 연결이 약화      6. 시간이 많이 남는 것
  7.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는 것      8. 없음
6.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외에 정년 퇴직 후 최대수입원은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1개만)
  1. 기업연금, 공제      2. 근로수입      3. 예적금 인출      4. 예적금 이자
  5. 임대수입      6. 부동산 매각 수입      7. 주식 배당
  8. 펀드관련 배당 및 연금      9. 주식 매각 / 펀드 환매
7. 정년퇴직 후 생활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지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의료비      2. 부양비용      3. 세금, 사회보험료      4. 식비
  5. 광열비      6. 주택대출상환      7. 임대료      8. 교제비, 레저비용
  9. 자녀, 손자 등 양육비      10. 자녀/손자에게 유산 남겨야 함으로 돈을 쓰고 싶지 않다
8. 정년퇴직 후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60 세      2. 65 세      3. 70 세      4. 몸이 움직이는 한
  5. 빨리 은퇴하고 싶다

## 2. 공적 연금

9. 귀하께서는 공적 연금제도(국민연금, 공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고 계십니까?
1.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2.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3. 별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4. 전혀 이해 하고 있지 않다
10. 노후를 커버하는 수단으로서 현재의 공적연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하시는 지요?
3. 아주 안심하고 있다.
  4. 그럭저럭 안심하고 있다.
  5. 별로 안심할 수 없다
  6. 불안하다
  7. 모르겠다
11. 귀하께서는 정년퇴직 후 공적연금을 얼마나 받을 예정인지 그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1. 잘 알고 있다.
  2. 대강 알고 있다
  3. 모른다
- 11-1. (문 11, 1,2 응답자) 정년퇴직 후 공적연금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2. 그럭저럭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3. 생활하기에 힘든 수준이다
  4. 전혀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5. 모름

## 3. 기업연금

12. 귀하께서는 확정 기여형(DC형) 기업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알고있다
  2. 모른다
- 12-1. (문12, 1응답자)확정 기여형(DC형) 연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1개만)
1.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음
  2.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
  3. 이직 시, 연금을 옮길 수 있다는 점
  4. 스스로 노후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5. 자신의 연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
  6. 타기업 연금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점

12-2. (문12, 1응답자)귀하께서는 확정 기여형(DC형)이나 공적연금으로 퇴직후 자산 형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능하다
2. 약간 부족하다
3. 아주 부족하다
4. 모름

13. 확장 기여형 연금(DC형)에 가입하고 싶으세요?

1. 가입하고 싶다
2. 가입 검토 중이다
3. 가입하고 싶지 않다
4. 모름

#### 4. 은퇴준비

14. 공적연금 기여액 이외에 정년퇴직 후 생활비 총액은 얼마 정도 필요하리라 예상하십니까?

1. 필요없다
2. 1억 2천만 미만
3. 1억 2천만 원~2억 4천만 원
4. 2억 4천만 원~3억 6천만 원
5. 3억 원 6천만~6억 원
6. 6억 원~8억 4천만 원
7. 8억 4천만 원~12억 원
8. 12억 원 이상

15. 정년 퇴직 후 공적 연금의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조금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6. 귀하께서 현시점에 노후자금 명목으로 준비하신 자금은 얼마입니까

1.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2. 1,200만원 미만
3. 1,200~6,000만 원
4. 6,000만 원~1억 2천만 원
5. 1억 2천만 원~2억 4천만 원
6. 2억 4천만 원~3억 6천만 원
7. 3억 6천만~6억 원
8. 6억 원 이상

- 
17. 자신은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은 준비를 했다.
  2. 비슷한 정도이다.
  3. 준비가 부족하다.
  4.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8. 퇴직 전후로 생활비 수준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 퇴직 전 30% 미만
  2. 퇴직 전 50% 미만
  3. 퇴직 전 70% 미만
  4. 퇴직 전후 차이가 없음
  5. 퇴직 전보다 늘어날 것
  6. 모르겠다
19. 공적연금 이외, 정년퇴직을 위한 자신 준비방법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1. 퇴직금/기업연금
  2. 예적금
  3. 금융상품투자
  4. 부동산 취득
  5. 유산상속
  6. 기타
20. 정년퇴직 후의 자산형성을 위해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
  2. 계획 하에 저축을 하고 있다.
  3.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하고 있다.
  4. 딱히 하는 것이 없다.
21. 정년퇴직까지 필요자금준비를 위해 귀하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생활비 절감과 지출 억제
  2. 저축.자산 운영을 통한 자금 저축
  3.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수입증가
  4. 은퇴를 위한 기술 습득
  5. 개선할 점이 없다